

다문화가정 유아의 언어능력과 유아-어머니간 놀이상호작용\*  
- 동남아시아 결혼이민자가정을 중심으로 -

Multi-cultural Children's Language Abilities and  
Play-Interactions with Their Mothers\*

송요현(Yo-Hyun Song)<sup>1)</sup>

현온강(On-Kang Hyun)<sup>2)</sup>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factors that are associated with a child's development within a multi-cultural family, taking into account the factors that influence the child's language ability and their play interactions with their mothers. First,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children's language ability based on the child's gender, or based on the language in which the mother communicated with her children. However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depending on the children's age, the mother's native country, and the period of time the mother had lived in Korea. Second,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child-mother play interaction based on the children's age, gender, the mother's native country, the period of time the mother has lived in Korea, or the language in which the mother communicated with her children. However, the boys showed a more hostile attitude toward their mothers, in comparison to the girls. In conclusion, it can be said that there is an urgent need for comprehensive social support services and policies for the overall development of multi-cultural children, especially through programs for children and mothers.

**Key Words** : 다문화가정(multi-cultural family), 유아의 언어능력(children's language ability), 유아-어머니간 놀이상호작용(mother-child play interaction).

\* 본 논문은 2009년 인하대학교 박사학위 논문의 일부를 수정 및 정리한 내용임.

<sup>1)</sup> 인하대학교 대학원 소비자아동학과 아동복지학 박사, 인천남구건강가정지원센터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팀장

<sup>2)</sup> 인하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소비자아동학과 명예교수

**Corresponding Author** : On-Kang Hyun, Department of Consumer and Child Studies, Inha University, Incheon 402-751, Korea  
E-mail : okhyun@inha.ac.kr

## I.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2008년 5월말 현재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이 100만 명을 넘어섰다(세계일보, 2008. 12. 16). 특히, 2009년 5월 현재 외국인주민은 2008년도에 비해 24.2%가 증가한 1,106,884명이며, 이는 주민등록인구의 2.2%에 해당한다. 특히, 다문화가정인 결혼이민자 가정의 경우는 2008년도 대비 22.4%가 증가한 125,673명이다. 외국인주민의 자녀는 전체 외국인주민의 9.7%인 107,689명으로 2008년도 대비 85.6%가 증가했으며, 만 6세 이하는 2008년도 대비 93.2%가 증가한 64,040명으로 집계되었다(행정안전부, 2009). 즉, 한국사회는 현재 ‘다문화 사회’이다.

다문화사회로의 전이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으며, 이는 다문화가정 및 그들이 이루고 있는 관계와 적응 등에 대한 학문적 연구로 발전하게 되었다. 초기의 다문화가정에 대한 연구들은 김이선·김민정과 한건수(2006), 설동훈·이혜경과 조성남(2006), 양애경·이선주·최훈석·김선화와 정혁(2007)의 연구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처럼, 한국문화에 적응하게 되는 1세대인 다문화가정의 어머니에게 집중되어 연구가 이루어졌다. 특히 다문화가정 어머니가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문화적 차이와 의사소통의 어려움 등으로 인한 남편 및 시댁 식구와의 갈등, 자녀양육과 교육의 어려움 등을 경험할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이순형, 2007; 이영주, 2007; 이진숙, 2007).

연구의 축적과 더불어 어머니들의 정착뿐만 아니라 그들이 이루고 있는 가정환경, 특히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사회적 적응에 대한 관심이 높아

지고 있다. 선행연구들에서 다문화가정 유아가 겪게 되는 어려움이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적응의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설동훈·김운태·김현미·윤홍식·이혜경·임경택·정기선·주영수·한건수, 2005; 오성배, 2005, 2007; 조영달, 2006, 2008; 홍진주, 2007).

연구자들을 통해서 다문화가정, 특히 결혼이민자가정을 대상으로 실태조사 및 적응의 문제들을 연구되기 시작했고(김민화·신혜은, 2008; 박미경, 2007; 설동훈 외 2005; 조영달, 2006; 조혜영·이창호·권순희, 2007; 황정미·김이선·이명진·최현, 2007), 정부에서도 ‘열린 다문화 사회’를 표방하며 다양한 문화의 사회통합을 추구하고 있다.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정부차원에서도 ‘결혼이민자 조기적응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생활지원’, ‘다문화가족 자녀 임신·출산·양육 지원’, ‘다문화아동·청소년 학습 발달 및 역량 개발 강화’등을 위한 한국어 교육과 도우미 파견, 통역원을 이용한 상담운영의 활성화 등의 정책적 지원들을 마련하고 있다(보건복지가족부, 2006, 2008; 보건복지가족부,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 2008).

일반적으로, 유아-어머니의 관계를 다룬 대부분의 연구들은 어머니의 행동특성이 아동의 발달과 적응에 미치는 일방향적 영향 또는 관계에 대한 것이다. 하지만 초기의 일방향적 관점은 어머니와 유아의 관계가 일방적인 것이 아니며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는 역동적인 관계라는 양방향적인 관점으로 변화하고 있다(Kochanska & Murray, 2000). 따라서 어머니와 유아의 상호작용을 살펴볼 때, 어머니와 유아의 행동 특성뿐만 아니라 어머니와 유아를 하나의 단위로 생각하는 양방향적 상호작용(dyadic interaction) 또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한다(Weinfeld, Ogawa, & Egeland, 2002).

유아들은 최초의 놀이파트너인 어머니와 언어를 사용하면서, 놀이를 보다 정교화 시킨다. 많은 연구들에서 어머니와 유아의 관계는, 유아의 인지, 정서, 사회성 발달에 영향을 미치거나 예측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Denham, Renwick, & Holt, 1991). 또한 문제해결 상호작용 동안 정서적 지지와 적절한 지도를 제공하고 한계를 설정해주는 어머니의 행동 특성과 긍정적인 정서를 표현하고 과제에 자신감 있게 임하는 아동의 행동특성이 이후 취학전 시기와 학령초기 유아의 학업성취와 학교적응을 예측한 연구도 있었다(Pianta & Harbers, 1996). Gardner, Ward, Burton 과 Wilson(2003)은 다양한 수준의 품행문제를 보였던 아동들의 예후를 살펴본 종단연구에서, 어머니와 유아가 함께 놀이에 참여한 시간이 이후 유아의 품행문제를 예측함을 밝혔다. 즉 유아 어머니와 함께 놀이에 참여한 시간은 이후 품행문제의 개선을, 어머니와 상호작용하지 않은 시간은 품행문제의 악화를 예측하였다. 이렇듯 어머니와 유아의 상호작용은 특히 놀이를 통해서 이루어질 때 다양하게 관찰될 수 있다.

어머니는 유아에게 있어서 최초 사회의 시작이며, 최초의 환경이 된다. 따라서 어머니는 유아의 전반적발달의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는 요소이다. 어머니는 자신을 둘러싼 또 다른 환경들과의 관계와 그 속에서 경험하는 관계의 영향을 받게 된다. 즉, 어머니는 주변의 이웃과 지역사회와 같은 외체계와 국가와 문화, 법과 관습과 같은 거시체계를 통해서 영향을 받는 존재가 된다. 특히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경우 국가의 정책과 문화, 관습 등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는 존재일 수밖에 없다. 어머니의 가치관과 경험은 아이에게 사회를 접하게 하는 창문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다문화가정 어머니는 유아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된다.

유아의 언어발달은 주변 환경에서 오는 언어적 자극과 상호작용하며 발달하기 때문에 유아를 둘러싼 물리적 환경의 질에 따라 유아의 언어발달이 지체될 수도, 촉진될 수도 있다(이순형 · 권미경 · 최인화 · 김미정 · 서주현 · 최나야 · 김지현, 2010). 유아에게 있어서 정서적 지지 기반과 같은 역할을 하는 어머니는 유아의 언어능력에 일차적인 영향을 주는 중요한 환경적 기반이다.

그러나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경우 상당수가 본인의 한국어 실력에 자신이 없다고 보고하고, 자녀와 대화를 충분히 하는 경우가 29%밖에 되지 않으며, 자녀와의 대화에서의 어려움은 54.2%가 자녀보다 한국어를 못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이순형 · 문무경 · 최연실 · 이숙정 · 정하나 · 우현경, 2006). 또한 설동훈 외(2005)의 연구에서는 자녀의 과제를 21.1%가 도와주지 못하며, 그 이유로는 한국어를 이해하기 힘들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44%로 제일 많았다. 오성배(2005)의 연구에서도 다문화가정 어머니가 한국어를 제대로 익히지 못한 상태에서 자녀 양육의 상당 부분을 책임지기 때문에 다문화가정 아동의 언어발달 상태가 늦는다고 보고하고 있다.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경우, 한국문화에 적응함과 동시에 일반적인 부모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들이 갖는 출신국가의 배경과 언어, 한국에서 거주했던 시간 등과 같은 독특한 배경은 어머니의 문화적응뿐만 아니라 유아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영향력을 미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문화적응과 이 과정에서 경험할 수 있는 갈등은 자신의 적응뿐만 아니라 부모역할수행에 반영될 수 있으며 이는 곧 자녀와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사회는 다문화가정의 증가로 다문화 현상의 확대만이 아니

라, 그로 인해 빚어지는 문제점들도 드러나기 시작했다. 특히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57.1%가 6세 이하의 유아인 것을 감안해볼 때(행정안전부, 2008), 이들의 발달에서의 위험요소가 일반가정의 유아보다 많이 노출되어 있음을 예상해볼 수 있다. 다문화가정의 유아를 대상으로 연구한 기존의 선행연구는 유아의 언어발달과 사회적응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이후의 학교부적응과 학습장애로의 문제까지 예측할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오성배, 200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 유아의 발달에 있어서 중요한 언어능력과 어머니와의 상호작용을 살펴봄으로, 다문화가정 유아가 겪고 있는 어려움과 실태를 알아보는 기초 작업을 하고자 하였다.

## 2. 연구문제

<연구문제 1> 다문화가정 유아의 언어능력(수용 언어능력, 표현언어능력, 통합언어능력)은 어떠한가?

- 1-1. 다문화가정 유아 언어능력의 전반적 경향은 어떠한가?
- 1-2. 다문화가정 유아의 성별과 연령에 따라 언어능력은 차이가 있는가?
- 1-3.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유아의 언어능력은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다문화가정 유아-어머니간 놀이상호작용은 어떠한가?

- 2-1. 다문화가정 유아-어머니간 놀이상호작용의 전반적 경향은 어떠한가?
- 2-2. 다문화가정 유아의 성별과 연령에 따라 유아-어머니간 놀이상호작용은 차이가 있는가?
- 2-3.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유아-어머니간 놀이상호작용은 차이가 있는가?

## 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을 인천 및 경기지역에 거주하는 ‘동남아시아 여성결혼이민자가정’으로 하였다. 또한 유아의 연령은 만 30개월부터 초등학교 취학전인 유아로 제한하여 모집하였다. 유아의 연령의 하한선을 만 30개월부터로 제한하여 모집한 이유는 유아의 언어발달이 만 30개월을 시작으로 급격하게 발달하기 때문이다(이차숙, 2005 : 84-86). 유아의 연령 상한선을 초등학교 취학전 유아로 제한한 이유는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 다문화가정 유아들이 초등학교 입학 후, 학습문제와 적응의 문제를 보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 참여한 연구대상은 만 31개월부터 76개월에 해당하며, 유아의 평균연령은 50.3개월이었다. 연구대상의 표집은 눈덩이 표집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대상 가정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유아의 성별은 여아가 23명(62.2%), 남아가 14명(37.8%)였다. 유아의 연령은 만 2-3세 이하가 13명(평균 37.2개월, 35.1%), 만 4세가 14명(평균 49.1개월, 37.8%), 만 5-6세 이상이 10명(평균 69.1개월, 27.0%)으로 비슷한 비율이었다. 어머니의 출신국가는 필리핀이 19명(51.4%)로 가장 많았고, 연령은 30세 이하가 14명(37.8%)으로 가장 많았다. 어머니의 한국 거주기간은 3-4년이 24.3%으로 9명, 5-7년은 54.1%로 20명이었고, 8-11년이 21.6%로 8명이었다. 한국국적을 소유한 어머니는 전체의 54.1%인 20명이었고, 소유하지 않은 사람은 29.7%로 11명이었다. 자녀와 대화 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말만 사용하는 경우(46.0%)보다는 한국말과 본국말(영어 포함)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54.1%)가 조금 더

<표 1>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N=37)

| 변인                 |                 | 구분     | 사례수<br>(명) | 백분율<br>(%) |
|--------------------|-----------------|--------|------------|------------|
| 유아특성               | 성<br>별          | 여자     | 23         | 62.2       |
|                    |                 | 남자     | 14         | 37.8       |
|                    | 연령              | 만 2-3세 | 13         | 35.1       |
|                    |                 | 만 4세   | 14         | 37.8       |
|                    |                 | 만 5-6세 | 10         | 27.0       |
| 출신<br>국가           | 필리핀             | 19     | 51.4       |            |
|                    | 베트남             | 12     | 32.4       |            |
|                    | 태국              | 5      | 13.5       |            |
|                    | 인도네시아           | 1      | 2.7        |            |
| 어머니특성              | 어머니<br>연령       | 30세 이하 | 14         | 37.8       |
|                    |                 | 31-40세 | 13         | 35.1       |
|                    |                 | 41세 이상 | 5          | 13.5       |
|                    |                 | 무응답    | 5          | 13.5       |
|                    | 어머니의 한국<br>거주기간 | 3-4년   | 9          | 24.3       |
|                    |                 | 5-7년   | 20         | 54.1       |
|                    |                 | 8-11년  | 8          | 21.6       |
|                    | 한국국적 취득여부       | 있음     | 20         | 54.1       |
|                    |                 | 없음     | 11         | 29.7       |
|                    |                 | 무응답    | 6          | 16.2       |
| 자녀와 대화시<br>사용하는 언어 | 한국말             | 17     | 46.0       |            |
|                    | 한국말과 본국말        | 20     | 54.1       |            |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2. 연구도구

### 1) 유아의 언어능력 검사도구

다문화가정 유아의 언어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김영태·성태제와 이윤경(2003)이 개발한 ‘취학전 아동의 수용언어 및 표현언어 발달 척도 (PRES)’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언어발달 수준이 2세에서 6세에 해당되는 유아의 수용언어 및 표현언어 발달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고안된 표준화된 검사이다.

본 척도는 수용언어영역(예 : “선생님이 말하

는 그림을 짚어보세요” ‘다른 것끼리 있는 그림은?’ : 40-42개월 ‘같다/다르다’의 이해 문항)과 표현언어영역(예 : “선생님이 말을 시작하면 ○ ○가 마저 끝내세요.” ‘엄마는 여자고, 아빠는 …’ : 40-42개월 ‘반대말 사용’의 이해 문항)의 문항이 각각 45개씩, 총 90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두 영역 모두 15개의 언어발달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검사실시지침에서 연구를 위한 목적으로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획득점수를 기초로 산출하는 것이 권장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획득한 획득점수를 기초로 해서 언어능력연령을 산출하여 분석하였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97이었다.

## 2) 다문화가정 유아-어머니간 놀이상호작용 관찰 및 관찰코딩도구

### (1) 놀이상호작용 관찰도구의 구성

본 연구의 관찰 도구는 1980년대 후반부터 미국 아동보건발달연구소(National Institute of Child Health and Human Development : NICHD)의 영유아보육 및 발달 연구(Study of Early Child Care and Youth Development : SECCYD)에서 사용하고 있는 'Three Boxes Task'를 재구성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도구는 어머니와 유아의 상호작용의 질을 살펴보기 위한 반구조화(semi-structured procedure)된 연구도구로, 도구의 사용이 비교적 용이한 도구이며 여러 연구에서 재구성하여 사용하고 있는 도구이다.

본 연구에서는 NICHD 연구진의 회신에서 한국문화에 맞추어 재구성한 도구의 사용이 가능하더라였기에 본 연구에서는 NICHD의 기본 도구들에 맞추어서 도구를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총 3개의 상자에 각각 그림동화책과 소꿉놀이세트, 듀플로(Duplo)블록세트로 도구를 구성하였다.

(2) 유아-어머니간 놀이상호작용 관찰코딩도구  
유아-어머니간 놀이상호작용을 관찰한 동영상 분석하기 위해 사용한 코딩 도구는 미국 아동보건발달연구소(NICHD)의 영유아보육 및 발달 연구(SECCYD)에서 사용하고 있는 Three Boxes Task의 36개월에 해당되는 유아-어머니간 놀이 상호작용의 질을 측정하는 코딩매뉴얼(coding manual)을 번역하여 사용하였다. NICHD에서 사용하고 있는 코딩매뉴얼의 구성은 '어머니 측정척도(Mother rating scales)'와 '유아 측정척도(Child rating scales)', '상호관계 측정척도(Dyadic scale)'로 구성되어 있다(부록 1). 이 척도는 유아와 어머니간의 놀이상호작용을 측정하는 '질적인 측

정 척도(Qualitative Rating Scales)'로 각 하위요인은 '매우 낮음(very low, 1점)'부터 '매우 높음(very high, 7점)'으로 평정하는 7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가 관찰 측정의 잦아짐이 되어 신뢰도 있는 측정을 하는 것을 검증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동복지학을 전공하는 박사과정 1인과 더불어 관찰 분량의 15%를 함께 관찰하여 관찰자간 신뢰도를 측정하였으며, Likert 방식으로 점수화되어 수집된 연속변수의 자료이기 때문에 관찰자간 신뢰도는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사용하여 계산하였다(이은혜·이미리·박소연, 2006). 그 결과 본 연구의 관찰자간 신뢰도는 .80으로 산출되었다.

## 3. 연구절차

이 연구의 예비 조사는 2008년 7월 11일부터 21일까지 실시되었으며, 다문화가정과 일반한국 가정 각 2가정씩 조사를 하였다. 본조사는 2008년 7월 25일부터 11월 2일까지 진행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의 어머니가 실험실로 찾아오는 것의 어려움과 유아가 낯선 환경에서 위축될 수 있는 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능한 유아의 집에서 검사와 촬영이 진행하였다.

가정방문을 통해서 먼저 유아 언어검사를 약 20-30분가량 진행 하고, 유아의 언어검사가 진행되는 동안 어머니에게 기본적인 인구통계학적 요인에 대한 설문지 작성을 요청하였다. 유아의 언어검사를 마친 이후, 유아-어머니의 놀이상호작용 촬영을 약 15-20분간 진행하였다.

방문시간은 유아와의 라포(rapport)형성 시간을 포함하여 1시간-1시간 30분 정도로 가정과 유아의 특성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었다. 본조사에서 45가정을 연구대상으로 수집하였으나, 장애유아가 있는 3가정과 기본정보에 대한 설문지

가 수거되지 않은 5가정을 제외한 총 37가정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 4. 자료의 처리와 분석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은 연구도구에 따라 다른 방법으로 분석하여 수집하였다. 먼저 유아의 언어검사는 검사 시행 후, 생활월령과 언어능력월령을 산출하고, 유아-어머니간 놀이상호작용 관찰은 15분간의 녹화된 동영상을 관찰 한 이후 코딩매뉴얼에 따라 평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표본의 크기가 작기 때문에 모수적인 분석방법을 사용할 수 없었다. 따라서 언어검사결과, 유아-어머니간 놀이상호작용 평정결과 및 설문지 등의 수집된 자료는 비모수통계기법(Nonparametric statistics)을 이용하여 통계 분석하였다. 모수적 방법에서는 관측값의 평균을 이용하여 분석하는 반면, 비모수적 방법에서는 관측값의 순위를 이용하여 분석한다(최숙희, 2009). 연구문제에 따라서 모수적 방법에서 t검정에 해당하는 맨-위트니 U-검정(Mann-Whitney U-test)과 일원분산분석에 해당하는 크루스칼-왈리스 검정(Kruskal-Wallis test)을 통해 분석하였으며, 두 검정 모두 점수가 높을수록 순위값이 크다(최숙희, 2009).

### III 결과분석

#### 1. 다문화가정 유아의 언어능력

1) 다문화가정 유아 언어능력의 전반적 경향  
다문화가정 유아의 언어능력을 ‘수용언어능력’, ‘표현언어능력’, ‘통합언어능력’으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는 <표 2>와 같다. 유아의 언어능력

<표 2> 다문화가정 유아 언어능력의 전반적 경향(개월)

| 생활월령         | 수용 언어능력     | 표현 언어능력      | 통합 언어능력     |
|--------------|-------------|--------------|-------------|
| 평균 (표준편차)    | 평균 (표준편차)   | 평균 (표준편차)    | 평균 (표준편차)   |
| 50.3 (13.29) | 43.3 (9.81) | 45.8 (10.18) | 45.2 (9.79) |

은 생활월령과 각 영역의 획득점수에 해당하는 월령의 차이 값으로 산출한 것이다.

유아의 생활연령의 평균은 50.3개월이었으며 (표준편차=13.29), 수용언어능력의 평균은 43.3개월(표준편차=9.81), 표현언어능력의 평균은 45.8개월(표준편차=10.18), 통합언어능력의 평균은 45.2개월이었다(표준편차=9.79). 유아 언어는 ‘수용언어능력’이 약 7.1개월, ‘표현언어능력’이 5.2개월, ‘통합언어능력’이 5.9개월 지연되는 것으로 보였다(표 2).

그러나 언어검사지침서에 따르면 유아의 통합언어월령이 생활월령과 12개월 미만 정도로만 차이를 보이는 경우에는 ‘정상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통합언어능력의 5.9개월 지연은 정상범위에 속하는 발달로 간주할 수 있다.

#### 2) 다문화가정 유아의 성별과 연령에 따른 언어능력의 차이

유아의 성별과 연령에 따라 유아의 언어능력의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맨-위트니 U-검정(Mann-Whitney U-test)과 크루스칼-왈리스 검정(Kruskal-Wallis test)을 실시하였다.

유아의 성별에 따른 언어능력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표 3), 유아의 연령에 따라 차이를 살펴본 결과, ‘수용언어능력’, ‘표현언어능력’, ‘통합언어능력’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

&lt;표 3&gt; 유아의 성별과 연령에 따른 유아 언어능력의 차이

|                   |       | 수용언어능력    | 표현언어능력    | 통합언어능력    |
|-------------------|-------|-----------|-----------|-----------|
|                   |       | 사례수(평균순위) | 사례수(평균순위) | 사례수(평균순위) |
| 성별                | 여아    | 23(19.28) | 21(18.74) | 21(18.29) |
|                   | 남아    | 14(18.54) | 12(13.96) | 12(14.75) |
|                   | 합계    | 37        | 33        | 33        |
| Mann-Whitney U    |       | 154.5     | 89.5      | 99.0      |
| Z값                |       | -0.205    | -1.368    | -1.012    |
| 연령                | 만2-3세 | 13(22.92) | 11(24.14) | 11(22.73) |
|                   | 만4세   | 14(23.50) | 12(18.63) | 12(20.46) |
|                   | 만5-6세 | 10( 7.60) | 10( 7.20) | 10( 6.55) |
|                   | 합계    | 37        | 33        | 33        |
| Kruskal-Wallis' H |       | 15.367*** | 16.663*** | 17.116*** |

\*\*\* $p < .001$ 

주. 표현언어능력의 측정의 경우 일상생활에서 유아의 표현언어를 주양육자에게 응답하여 측정하는 항목들이 있으나, 다문화가정 어머니와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측정이 어려운 사례들은 측정의 정확성을 위해 결측치로 처리하여 사례수가 다르게 관측됨.

타났다( $p < .001$ ).

유아의 연령에 따라 유아의 언어능력의 하위 요인을 각각 살펴보면, 먼저 ‘수용언어능력’에서 만4세 유아의 평균순위가 23.50, 만2-3세 유아의 평균순위는 22.92, 만5-6세 유아의 평균순위는 7.60으로 나타났으며, 크루스칼-왈리스 검정의 H 통계값은 15.367로 나타났다.

‘표현언어능력’은 유아의 연령에 따라 만2-3세 유아의 평균순위는 24.14, 만4세 유아의 평균순위는 18.63, 만5-6세 유아의 평균순위는 7.20으로 나타났고, 크루스칼-왈리스 검정의 H 통계값은 16.663이었다. ‘통합언어능력’의 평균순위는 유아의 연령에 따라 만2-3세 유아는 22.73, 만4세 유아는 20.46, 만5-6세 유아는 6.55였으며, 크루스칼-왈리스 검정의 H 통계값은 17.116이었다(표 3). 유아의 연령에 따라 유아의 언어발달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수용언어능력’, ‘표현언어능력’, ‘통합언어능력’에서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유아 연령이 어릴수록 비다문화

가정 유아와 비교했을 때 언어발달의 격차가 적었음을 의미한다.

### 3) 어머니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유아 언어능력의 차이

어머니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어머니의 출신국가, 한국 거주기간, 한국국적 취득여부, 자녀와 대화 시 사용하는 언어로 이루어진다.

어머니의 출신국가에 따라 유아의 언어능력을 ‘수용언어능력’과 ‘표현언어능력’, ‘통합언어능력’로 나누어 차이를 살펴본 결과, ‘수용언어능력’은 유의수준 .05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 ‘표현언어능력’과 ‘통합언어능력’에서는 유의수준 .01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수용언어능력’에서 어머니의 출신국가별 평균순위를 살펴보면, 인도네시아 어머니를 둔 유아는 29.00, 베트남 어머니를 둔 유아의 평균순위는 25.79, 필리핀 어머니를 둔 유아의 평균순위는 15.53, 태국 어머니를 둔 유아의 평균순위는 13.90으로 나

<표 4> 어머니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유아 언어능력의 차이

|                   |          | 수용언어능력     | 표현언어능력     | 통합언어능력     |
|-------------------|----------|------------|------------|------------|
|                   |          | 사례수 (평균순위) | 사례수 (평균순위) | 사례수 (평균순위) |
| 출신국가              | 필리핀      | 19(15.53)  | 17(13.56)  | 17(13.41)  |
|                   | 베트남      | 12(25.79)  | 11(24.95)  | 11(24.77)  |
|                   | 태국       | 5(13.90)   | 4(10.38)   | 4(10.00)   |
|                   | 인도네시아    | 1(29.00)   | 1(14.50)   | 1(20.50)   |
|                   | 합계       | 37         | 33         | 33         |
| Kruskal-Wallis' H |          | 8.728*     | 11.584**   | 11.705**   |
| 한국 거주기간           | 3-4년     | 9(24.89)   | 8(26.50)   | 8(24.88)   |
|                   | 5-7년     | 20(18.65)  | 17(13.00)  | 17(14.82)  |
|                   | 8-11년    | 8(13.25)   | 8(16.00)   | 8(13.75)   |
|                   | 합계       | 374.990    | 33         | 33         |
| Kruskal-Wallis' H |          | 4.990      | 10.756**   | 7.089*     |
| 한국국적              | 있음       | 20(16.80)  | 18(13.36)  | 18(14.33)  |
|                   | 없음       | 11(14.55)  | 10(16.55)  | 10(14.80)  |
|                   | 합계       | 31         | 28         | 28         |
| Mann-Whitney U    |          | 94.0       | 69.5       | 87.0       |
| Z값                |          | -0.663     | -0.985     | -0.144     |
| 자녀와의 대화           | 한국어      | 17(21.50)  | 15(19.60)  | 15(19.87)  |
|                   | 한국어와 모국어 | 20(16.88)  | 18(14.83)  | 18(14.61)  |
|                   | 합계       | 37         | 33         | 33         |
| Mann-Whitney U    |          | 127.5      | 96.0       | 92.0       |
| Z값                |          | -1.301     | -1.413     | -1.557     |

\*\* $p < .01$  \* $p < .05$

타났다. 크루스칼-왈리스 검정의 H 통계값은 8.728이었다( $p < .05$ , 표 4).

‘표현언어능력’을 어머니의 출신국가별로 평균순위를 살펴보면, 베트남 어머니를 둔 유아의 평균순위는 24.95, 인도네시아 어머니를 둔 유아는 14.50, 필리핀 어머니를 둔 유아의 평균순위는 13.56, 태국 어머니를 둔 유아의 평균순위는 10.38으로 나타났다. 크루스칼-왈리스 검정의 H 통계값은 11.584로 나타났다( $p < .01$ , 표 4). 어머니의 출신국가에 따라 ‘통합언어능력’을 살펴본 결과, 베트남 어머니를 둔 유아의 평균순위는 24.77, 인도네시아 어머니를 둔 유아의 평균순위

는 20.50, 필리핀 어머니를 둔 유아의 평균순위는 13.41, 태국 어머니를 둔 유아의 평균순위는 10.00으로 나타났다. 크루스칼-왈리스 검정의 H 통계값은 11.705이었다( $p < .01$ , 표 4).

어머니의 출신국가에 따라 유아 언어능력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수용언어능력’, ‘표현언어능력’, ‘통합언어능력’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수용언어능력’은 어머니의 출신국가가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태국인 유아의 순서로 언어능력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표현언어능력’과 ‘통합언어능력’은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인 어머니의 유아 순서로 언어능력

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어머니의 한국 거주기간에 따라 유아 언어능력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수용언어능력’, ‘표현언어능력’, ‘통합언어능력’에 대해 크루스칼-왈리스 검정(Kruskal-Wallis test)을 실시하였다. 어머니의 한국 거주기간은 3-4년, 5-7년, 8-11년의 3집단으로 구분하였으며, 어머니의 한국 거주기간에 따라 유아 언어능력은 ‘수용언어능력’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표현언어능력’은 유의수준 .01에서, ‘통합언어능력’은 유의수준 .05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표 4).

‘수용언어능력’은 어머니의 한국 거주기간에 따라 차이가 없었으며, 크루스칼-왈리스의 H 통계값은 4.990이었다. ‘표현언어능력’은 거주기간 3-4년인 어머니의 평균순위는 26.50, 거주기간이 8-11년인 어머니의 평균순위는 16.00, 거주기간이 5-7년인 어머니의 평균순위는 13.00이었으며, 크루스칼-왈리스의 H 통계값은 10.756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 < .01$ ). 유아의 ‘통합언어능력’은 거주기간이 3-4년인 어머니의 평균순위가 24.88, 거주기간이 5-7년인 어머니의 평균순위가 14.82, 거주기간이 8-11년인 어머니의 평균순위가 13.75로 나타났으며, 크루스칼-왈리스의 H 통계값은 7.089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 < .05$ ). 즉, 한국에 거주한지 8-11년이 된 어머니의 유아가 한국 거주기간이 3-4년, 5-7년

된 어머니의 유아보다 언어능력이 낮은 경향을 보였다.

어머니의 한국국적 취득여부와 자녀와 대화 시 사용하는 언어에 따라 ‘수용언어능력’, ‘표현언어능력’, ‘통합언어능력’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표 4). 즉 유아의 언어능력은 어머니의 한국국적 취득여부와 어머니가 자녀와 대화 시 사용하는 언어에 따라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 2. 다문화가정 유아-어머니간 놀이상호작용

### 1) 다문화가정 유아-어머니간 놀이상호작용의 전반적 경향

다문화가정 유아-어머니간 놀이상호작용의 전반적인 특징들을 알아보기 위해 유아-어머니간 놀이상호작용 관찰의 각 하위척도별 평균과 표준편차, 중앙값을 알아보았다.

<표 5>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유아-어머니간 놀이상호작용은 ‘어머니 측정척도’, ‘유아 측정척도’, ‘상호관계 측정척도’의 3개 측정척도로 나누어서 알아보았다.

어머니 측정척도의 전체 평균은 4.53(표준편차=.94)이고, 유아 측정척도의 전체 평균은 5.10(표준편차=.89)이었다. 유아-어머니간 놀이상호작용의 전체 평균은 4.53(표준편차=.94)이었다.

<표 5> 다문화가정 유아-어머니간 놀이상호작용의 특성

(N=37)

|              |  | 하위척도          | 평균   | (표준 편차) | 중앙값  |
|--------------|--|---------------|------|---------|------|
| 어머니<br>측정 척도 |  | 지원적 태도        | 4.00 | (1.53)  | 4.00 |
|              |  | 유아의 자율성 존중 태도 | 3.97 | (1.30)  | 4.00 |
|              |  | 인지발달의 자극      | 3.54 | (1.12)  | 4.00 |
|              |  | 적대적 태도*       | 2.22 | (1.49)  | 2.00 |
|              |  | 확신에 찬 태도      | 3.35 | (1.36)  | 3.00 |
|              |  | 전체 어머니 측정척도   | 4.13 | (.98)   |      |

<표 5> 계속

|                |  | 하위척도                 | 평균   | (표준 편차) | 중앙값  |
|----------------|--|----------------------|------|---------|------|
| 유아<br>측정 척도    |  | 열중하는 정도              | 5.59 | (0.93)  | 6.00 |
|                |  | 어머니를 향한 부정적 태도*      | 2.86 | (1.97)  | 2.00 |
|                |  | 지속하는 정도              | 6.03 | (1.04)  | 6.00 |
|                |  | 어머니를 향한 애착 정도        | 3.65 | (1.57)  | 4.00 |
|                |  | 전체 유아 측정척도           | 5.10 | (.89)   |      |
| 상호 관계<br>측정 척도 |  | 감정적 상호작용/정서적인 안정감 정도 | 4.22 | (1.99)  | 4.00 |
|                |  | 전체 유아-어머니간 상호작용      | 4.53 | (.94)   |      |

주. ‘전체 어머니 측정척도’, ‘전체 유아측정척도’, ‘전체 유아-어머니간 놀이상호작용’의 평균을 산출할 때, ‘적대적 태도’와 ‘어머니를 향한 부정적 태도’는 역코딩하였음.

2) 유아의 성별과 연령에 따른 유아-어머니  
간 놀이상호작용  
유아의 성별에 따라 ‘어머니 측정척도’항목  
중 ‘적대적 태도’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  
( $p<.01$ ), ‘유아 측정척도’와 ‘상호관계 측정척도’

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유아의 연  
령에 따라 살펴본 결과, ‘어머니 측정척도’와 ‘유  
아 측정척도’, ‘상호관계 측정척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표 6).

<표 6> 유아의 성별, 연령에 따른 유아-어머니간 놀이상호작용의 차이

(N=37)

|        |                   | 어머니 측정척도      |               |               |               |               | 유아 측정척도       |                |               |               | 상호관계 척도               |
|--------|-------------------|---------------|---------------|---------------|---------------|---------------|---------------|----------------|---------------|---------------|-----------------------|
|        |                   | 지원적 태도        | 유아의 자율성 존중 태도 | 인지발달의 자극      | 적대적 태도        | 확신에 찬 태도      | 열중하는 정도       | 어머니를 향한 부정적 태도 | 지속하는 정도       | 어머니를 향한 애착 정도 | 감정적 상호 작용/정서적인 안정감 정도 |
|        |                   | 사례수 (평균순위)     | 사례수 (평균순위)    | 사례수 (평균순위)    | 사례수 (평균순위)            |
| 성<br>별 | 여아                | 23<br>(19.57) | 23<br>(20.70) | 23<br>(18.85) | 23<br>(15.54) | 23<br>(19.72) | 23<br>(19.52) | 23<br>(18.30)  | 23<br>(21.09) | 23<br>(20.35) | 23<br>(20.50)         |
|        | 남아                | 14<br>(18.07) | 14<br>(16.21) | 14<br>(19.25) | 14<br>(24.68) | 14<br>(17.82) | 14<br>(18.14) | 14<br>(20.14)  | 14<br>(15.57) | 14<br>(16.79) | 14<br>(16.54)         |
|        | Mann-Whitney U    | 148.0         | 122.0         | 157.5         | 81.5          | 144.5         | 149.0         | 145.0          | 113.0         | 130.0         | 126.5                 |
|        | Z값                | -0.420        | -1.264        | -0.116        | -2.645**      | -0.532        | -0.402        | -0.516         | -1.591        | -0.989        | -1.102                |
| 연<br>령 | 3세이하              | 13<br>(17.12) | 13<br>(16.42) | 13<br>(17.92) | 13<br>(22.85) | 13<br>(16.88) | 13<br>(20.85) | 13<br>(24.04)  | 13<br>(16.35) | 13<br>(16.38) | 13<br>(17.15)         |
|        | 4세                | 14<br>(21.25) | 14<br>(19.89) | 14<br>(20.00) | 14<br>(17.57) | 14<br>(22.96) | 14<br>(16.29) | 14<br>(17.32)  | 14<br>(17.61) | 14<br>(18.71) | 14<br>(19.36)         |
|        | 5세이상              | 10<br>(18.30) | 10<br>(21.10) | 10<br>(19.00) | 10<br>(16.00) | 10<br>(16.20) | 10<br>(20.40) | 10<br>(14.80)  | 10<br>(24.40) | 10<br>(22.80) | 10<br>(20.90)         |
|        | Kruskal-Wallis' H | 1.109         | 1.294         | 0.279         | 2.994         | 3.221         | 1.631         | 4.937          | 3.922         | 2.077         | 0.730                 |

\*\* $p<.01$

<표 7> 어머니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유아-어머니간 놀이상호작용의 차이 (N=37)

|    | 어머니 측정척도          |               |            |            |            | 유아 측정척도    |                |            |               | 상호관계 척도               |            |
|----|-------------------|---------------|------------|------------|------------|------------|----------------|------------|---------------|-----------------------|------------|
|    | 지원적 태도            | 유아의 자율성 존중 태도 | 인지발달의 자극   | 적대적 태도     | 확신에 찬 태도   | 열중하는 정도    | 어머니를 향한 부정적 태도 | 지속하는 정도    | 어머니를 향한 애착 정도 | 감정적 상호 작용/정서적인 안정감 정도 |            |
|    | 사례수 (평균순위)        | 사례수 (평균순위)    | 사례수 (평균순위) | 사례수 (평균순위) | 사례수 (평균순위) | 사례수 (평균순위) | 사례수 (평균순위)     | 사례수 (평균순위) | 사례수 (평균순위)    | 사례수 (평균순위)            |            |
| A  | 필리핀               | 19 (17.58)    | 19 (16.42) | 19 (18.79) | 19 (19.68) | 19 (17.39) | 19 (18.26)     | 19 (17.55) | 19 (17.92)    | 19 (16.21)            | 19 (16.92) |
|    | 베트남               | 12 (22.88)    | 12 (23.29) | 12 (19.42) | 12 (17.04) | 12 (20.63) | 12 (20.00)     | 12 (18.63) | 12 (17.46)    | 12 (21.92)            | 12 (21.17) |
|    | 태국                | 5 (18.00)     | 5 (21.40)  | 5 (18.00)  | 5 (17.90)  | 5 (23.50)  | 5 (18.40)      | 5 (22.10)  | 5 (27.30)     | 5 (26.00)             | 5 (24.80)  |
|    | 인도네시아             | 1 (4.50)      | 1 (4.50)   | 1 (23.00)  | 1 (35.00)  | 1 (7.50)   | 1 (24.00)      | 1 (35.50)  | 1 (16.50)     | 1 (2.00)              | 1 (3.50)   |
|    | 합계                | 37            | 37         | 37         | 37         | 37         | 37             | 37         | 37            | 37                    | 37         |
|    | Kruskal-Wallis' H | 3.944         | 5.358      | 0.230      | 3.053      | 2.838      | 0.479          | 3.272      | 3.836         | 6.945                 | 4.860      |
| B  | 3-4년              | 9 (19.83)     | 9 (20.72)  | 9 (14.39)  | 9 (20.78)  | 9 (18.39)  | 9 (20.56)      | 9 (21.89)  | 9 (17.33)     | 9 (19.61)             | 9 (21.61)  |
|    | 5-7년              | 20 (16.40)    | 20 (17.35) | 20 (18.95) | 20 (19.80) | 20 (17.98) | 20 (18.45)     | 20 (20.35) | 20 (20.68)    | 20 (17.98)            | 20 (15.98) |
|    | 8-11년             | 8 (24.56)     | 8 (21.19)  | 8 (24.31)  | 8 (15.00)  | 8 (22.25)  | 8 (18.63)      | 8 (12.38)  | 8 (16.69)     | 8 (20.88)             | 8 (23.63)  |
|    | 합계                | 37            | 37         | 37         | 37         | 37         | 37             | 37         | 37            | 37                    | 37         |
|    | Kruskal-Wallis' H | 3.536         | 1.091      | 4.009      | 1.630      | 0.984      | 0.283          | 4.185      | 1.184         | 0.465                 | 3.692      |
| C  | 있음                | 20 (16.20)    | 20 (15.48) | 20 (16.70) | 20 (16.10) | 20 (16.80) | 20 (15.05)     | 20 (15.20) | 20 (15.68)    | 20 (15.88)            | 20 (14.93) |
|    | 없음                | 11 (15.64)    | 11 (16.95) | 11 (14.73) | 11 (15.82) | 11 (14.55) | 11 (17.73)     | 11 (17.45) | 11 (16.59)    | 11 (16.23)            | 11 (17.95) |
|    | 합계                | 31            | 31         | 31         | 31         | 31         | 31             | 31         | 31            | 31                    | 31         |
|    | Mann-Whitney U    | 106.0         | 99.5       | 96.0       | 108.0      | 94.0       | 91.0           | 94.0       | 103.5         | 107.5                 | 88.5       |
| Z값 | -0.170            | -0.448        | -0.612     | -0.088     | -0.677     | -0.833     | -0.682         | -0.281     | -0.106        | -0.901                |            |
| D  | 한국어               | 17 (18.59)    | 17 (20.21) | 17 (17.82) | 17 (18.26) | 17 (17.97) | 17 (19.12)     | 17 (18.82) | 17 (19.00)    | 17 (19.12)            | 17 (18.97) |
|    | 한국어와 모국어          | 20 (19.35)    | 20 (17.98) | 20 (20.00) | 20 (19.63) | 20 (19.88) | 20 (18.90)     | 20 (19.15) | 20 (19.00)    | 20 (18.90)            | 20 (19.03) |
|    | 합계                | 37            | 37         | 37         | 37         | 37         | 37             | 37         | 37            | 37                    | 37         |
|    | Mann-Whitney U    | 163.0         | 149.5      | 150.0      | 157.5      | 152.5      | 168.0          | 167.0      | 170.0         | 168.0                 | 169.5      |
| Z값 | -0.220            | -0.646        | -0.647     | -0.405     | -0.549     | -0.065     | -0.094         | 0.000      | -0.062        | -0.016                |            |

주. A. 어머니의 출신국가, B. 한국거주기간, C. 한국국적, D. 자녀와 대화 시 사용하는 언어

3) 어머니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유아-어머니간 놀이상호작용  
 어머니의 출신국가와 한국 거주기간, 한국국적 취득여부, 자녀와 대화 시 사용하는 언어에 따라 유아-어머니간 놀이상호작용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어머니 측정척도’와 ‘유아 측정척

도’, ‘상호관계 측정척도’에서 모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표 7).

####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특성, 유아의 언어능력과 유아-어머니의 놀이를 통한 상호작용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다문화가정 유아의 전반적 발달, 특히 언어발달과 놀이상호작용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아보려고 하였다.

수집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리며 그에 대한 논의를 함께 제시한다.

첫째, 다문화가정 유아의 언어능력은 유아의 연령과 어머니의 출신국가, 한국 거주기간에 따라 달랐다. 다문화가정의 경우 일반적인 유아의 언어발달과 달리 유아가 어린경우 언어발달이 빨랐다. 이러한 결과는 유아의 언어발달이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유아기에 어머니의 언어적 자극이 중요하나 연령이 높은 유아의 어머니는 초기에 한국어 정착하는 것의 어려움 때문에 유아에게 유능한 성인으로서 언어적 자극과 관심을 주는 것에 미흡했을 수 있음을 반영한다. 그러나 연령이 낮은 유아의 어머니의 경우 한국에서의 정착을 도와주는 정책적 지원이 일어나고 있는 시점과 유아의 언어적 폭발기가 맞물려서 먼저 한국에 거주했던 어머니의 유아들보다 언어능력이 좀더 빨랐다고 예상해볼 수 있다. 또한 어머니의 한국 거주기간이 짧을수록 유아의 언어가 더 빨랐는데, 이러한 결과는 유아의 연령과의 관계에서 언어능력의 차이가 있었음을 밝혔던 논지를 확고하게 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현재 한국사회에서 다문화 가정에 대한 관심과 정책

적 지원이 일어난 것은 3-4년에 불과하다. 이러한 근거는 연구자들의 연구시점이 3-4년 전부터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현재 3-4세 유아를 둔 어머니들이 정책적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살펴볼 때, 5세 이상의 유아들에게는 정책적 지원이 유아에게 언어자극을 주어야 할 시기에 이루어지지 못했고, 이 연령의 유아를 둔 어머니는 한국어 교육이나 정책적 지원을 받지 못한 경우가 더 많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다문화 가정 어머니에게 한국어 교육과 생활의 지지를 해주는 것은 어머니의 한국 적응만의 문제가 아닌 자녀 양육과 가정의 문제를 덜어줄 수 있는 적절한 조치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재정과 활발한 연구 및 지원은 다문화가정 유아와 어머니, 더 나아가서는 사회와 국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적절한 조치라고 볼 수 있다.

둘째, 다문화가정 유아와 어머니의 놀이상호작용은 유아의 성별, 연령과 어머니의 출신국가, 한국 거주기간, 자녀와 대화시 사용하는 언어에 따라 다르지 않았다. 다만, 유아의 성별에 따라서 ‘어머니 측정척도’중 ‘적대적 태도’에서만 남아의 경우에 더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남아가 여아보다 외현적 행동문제가 더 많이 나타난다는 선행연구들에 비추어볼 때(이경숙·신의진·전연진·박진아, 2004), 어머니가 유아를 대하는 평상시 태도가 유아를 좀 더 통제하려는 태도들이 보였다고 예상할 수 있다. 즉 어머니의 출신국가나 언어적인 어려움이 유아의 정서적인 유대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는 것은 아니며, 현재 다문화가정 어머니들은 유아와의 관계에서 어머니 역할을 수행해나가고 있음을 의미한다. 즉, 다문화 가정에서 어머니가 어머니 역할을 수행하지 않고, 유아의 사회화의 토대가 되는 정서적

지지기반을 마련해주지 못해서 유아의 적응의 문제가 나타나는 것이 아님을 예측해볼 수 있다. 역으로 말하면 유아의 적응의 문제는 어머니의 내재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라기보다는 다문화 가정의 어머니가 소유할 수밖에 없는 언어의 문제와 문화적인 차이에서 비롯되는 문제들로 빚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다문화가정 유아의 사회적 적응을 돕기 위한 외부의 지원과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자아정체감 향상을 위한 다문화교육이 필요하다고 피력한 송선진(2007)의 연구와 맥을 같이한다.

따라서 다문화가정 유아의 전반적 발달을 돕기 위한 포괄적 사회적 지원 서비스의 마련과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특히 다문화가정 유아와 어머니를 위한 동시적인 언어발달의 프로그램의 마련이 시급한 때라고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취약한 유아의 언어의 지연의 문제들을 도와주어 유아가 성장함에 따라 요청되는 학교적응과 학업에의 적응도 돕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연구대상이 인천과 경기지역으로 제한되어 연구대상이 소수의 인원으로서 이루어진 관찰연구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 대한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있어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제한점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열린 다문화 사회'를 맞이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본 연구는 동남아시아 다문화 가정 유아와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시의 적절한 연구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다문화 가정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유아와 어머니의 상호작용 관계를 관찰하여 두 대상을 함께 알아본 연구는 전은애(2008)의 연구를 제외하고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대부분의 연구들이 다문화 가정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하거나, 육아지원기관에서의 다문화가정 유아의 관찰이 주로 이루어진 연구

들이는데 반해, 본 연구는 다문화 가정 유아와 어머니를 직접 만나 그들의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동남아시아 다문화 가정의 실재(實在)를 알아봤다는 것에서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또한 본 연구는 다문화 가정 유아의 언어검사를 실시함으로써, 다문화 가정 유아의 언어발달의 정도를 알아보아, 다문화 가정 유아의 사회성 발달과 이후 적응을 위한 맞춤형 한국어교육과 적응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함을 학문적으로 밝혔다는데 의의가 있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유아-어머니의 놀이상호작용을 살펴봄으로써, 다문화 가정 유아-어머니의 실제적인 상호작용 양상을 살펴보았다. 이는 기존의 연구가 설문지 응답이나 어머니 응답, 유아의 관찰 등 한쪽 측면의 대상에만 치우친 연구들에서 유아와 어머니 양쪽을 함께 측정하고 관찰했다는 데서 다문화 가정 연구의 방법을 확장시켰으며, 기존의 연구보다 세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는 데 의의가 있다.

2008년 12월 16일 열린 '다문화정책포럼'에서 한건수 강원대 교수는 "현재 한국사회 변동의 주요 현상은 다인종 사회로의 전환이고, 이러한 추세는 도시와 농촌 상관없이 일상을 변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세계일보, 2008. 12. 16). 이렇듯 다문화 사회 상황으로의 진입이 분명한 현실에서 '다양성'을 인정하고 바람직한 사회통합을 이루는 방향에 대한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다양성'을 '다름'으로 치부해버리기 쉬운 현실에서의 생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본다. 다양한 문화라는 관점의 존중을 이야기하고 배려와 평등의 원리, 차이의 윤리에 대해 논의하면서 다문화가정을 바라볼 때, 쉽게 '다르나 같은 우리'라는 표어를 생각한다. 실례로 이주가정 청소년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보건복지가족부 산하 비영리 재단법인인 무지개청소년센터에서 2008년 12월 13일에 열린 행사의 제목도 ‘다르지만 같은 우리 함께하는 행복한 세상’이다. 그러나 이 관점이 바로 편견을 전제한 표어라고 볼 수 있다. 이 관점이 많은 정책이나 사람들 사이에서 시각의 차이를 양산한다고 보았기에, 본 연구자는 기존의 ‘다르나 같은 우리’의 관점에서 ‘같으나 다른 우리’라는 관점의 전환으로 다문화가정의 유아와 어머니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였다. 이는 ‘혼혈인’으로 널리 알려진 배기철 국제가족 한국총연합회장이 “나의 문화는 다문화도 이중문화도 아닌 한국문화”라고 문제제기 하였던 것(CBN NEWS, 2006. 5. 27, 홍기원, 2006, 재인용)과 그 시작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즉, ‘다름’에서 시작하는 문화가 아닌, ‘같음’의 문화 속에서 발견하는 ‘다름’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여기서의 ‘다름’은 동일한 한국사회를 이끌어 가는 한 사람으로서 다양한 역할을 감당하는 ‘다름’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다문화 가정 유아의 언어능력과 유아-어머니간 놀이상호작용을 알아봄으로써 미래에 한국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갈 다문화 가정 유아가 함께 더불어 살아갈 세상을 위한 기초적인 연구였다. 지금의 다문화 가정 유아들은 한국에서의 다문화 일세대 격에 해당하며, 앞으로 이들에게는 한국인으로 살아가는데 있어서의 정체성의 혼란들을 겪을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후속 연구에서는 이들의 현실을 바로 알고, 다문화 가정, 더 나아가서는 모든 다문화 가정을 포괄하는 연구들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다름’을 존중하지만, ‘같음’에서 시작한 ‘다름’을 존중하는 사회가 앞으로의 ‘열린 다문화 사회’를 맞이하는 자세여야 하겠다.

## 참 고 문 헌

- 김민화·신혜은(2008). 다문화가정 취학 전 유아 한 국어교육 지원을 위한 기초 연구. **아동학회지**, 29(2), 155-176.
- 김영태·성태제·이윤경(2003). **취학전 아동의 수용 언어 및 표현언어 발달 척도(PRES) 검사지침서**. 서울 :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 김이선·김민정·한건수(2006). **여성 다문화의 문화적 갈등 경험과 소통증진을 위한 정책과제**. 서울 : 한국여성개발원.
- 박미경(2007). 교사를 통해 본 다문화 가정 유아의 특성 및 교사의 어려움-결혼이민자 가정을 중심으로. 미출판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서울.
- 보건복지가족부 인구여성정책팀(2006. 9). **여성결혼이민자 가족 사회통합 지원대책-보건복지부 주관 과제별 추진실적 및 계획**. 국정감사요구자료.
- 보건복지가족부·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2008). **다문화가족지원을 위한 다문화사회이해**. 서울 :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발간번호 : 2008-결혼이민자-29).
- 보건복지가족부(2008. 10. 30). **다문화가족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강화대책**. 브리핑자료.
- 설동훈·김운태·김현미·윤홍식·이혜경·임경택·정기선·주영수·한건수(2005). **국제결혼 이주 여성 실태조사 및 보건·복지 지원정책 방안**. 서울 : 보건복지부.
- 설동훈·이혜경·조성남(2006). **다문화 가족실태조사 및 중장기 지원정책방안 연구**. 서울 : 여성가족부.
- 세계일보(2008. 12. 16). **“청소년층에 다문화사회 비전 제시 필요”**. [http : //www.segye.com/articles/components/func/print.asp](http://www.segye.com/articles/components/func/print.asp)에서 2008년 12월 17일 인출.
- 송선진(2007).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사회화 과정이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다문화교육을 위한 시사점을 중심으로-. 미출판 석사학위논문, 서울대

- 학교 대학원, 서울.
- 양애경 · 이선주 · 최훈석 · 김선화 · 정혁 (2007). **여성 다문화에 대한 지역사회의 수용성 연구**. 서울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오성배(2005). 코시안(Kosian) 아동의 성장과 환경에 관한 사례 연구. **한국교육**, 32(3), 61-83.
- 오성배(2007). 한국 사회의 소수 민족(ethnic minority), ‘코시안(Kosian)’ 아동의 사례를 통한 다문화교육의 방향 탐색. **교육사회학연구**, 16(4), 137-157.
- 이경숙 · 신의진 · 전연진 · 박진아 (2004). 한국 유아 행동문제의 경향과 특성 :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 발달**, 17(4), 53-73.
- 이순형(2007). 다문화사회와 생활문화 : 다문화의 생활 적용문제와 지원방안. 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다문화생활교육센터 개원심포지엄, 55-76.
- 이순형 · 권미경 · 최인화 · 김미정 · 서주현 · 최나야 · 김지현(2010). **영유아 언어지도**. 경기 : 교문사.
- 이순형 · 문무경 · 최연실 · 이숙정 · 정하나 · 우현경 (2006). **농촌여성결혼이민자 정착지원방안**. 경기 : 농림부.
- 이영주(2007). 국제결혼한 여성의 자녀에 대한 심리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보호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 여성**, 12(2), 83-105.
- 이은혜 · 이미리 · 박소연(2006). **아동 연구방법의 이해**. 서울 : 학지사.
- 이진숙(2007). 국제결혼가정의 자녀양육실태와 아버지의 양육참여에 관한 연구. **열린유아교육연구**, 12(6), 21-42.
- 이차숙(2005). **유아언어교육의 이론과 실제**. 서울 : 학지사.
- 전은애(2008). 다문화가정의 어머니-아동 상호작용과 어머니 문화적응차원과의 관계. 미출판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서울.
- 조영달(2006). 다문화가정의 자녀교육 실태조사. 교육부 정책연구과제, 2006-이슈-3.
- 조영달(2008. 11.5). 다문화주의와 교육정책-“성찰적 사회화”를 제안하며.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특강 자료집.
- 조혜영 · 이창호 · 권순희(2007). **다민족 · 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정책 패러다임 구축-세부과제 4 :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교생활실태와 교사 · 학생의 수용성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2007 협동연구 중간보고. 서울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최속희(2009). **심리통계학의 이해**. 서울 : 시그마프레스.
- 행정안전부(2008. 7). 2008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실태조사 결과. 지방행정국(자치행정과).
- 행정안전부(2009. 9). 2009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지방행정국(자치행정과).
- 홍기원(2006). 다문화정책의 방향과 문화적 지원 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 홍진주(2004). 몽골출신 이주노동자 자녀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관한 연구. 미출판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서울.
- 황정미 · 김이선 · 이명진 · 최현(2007). **다민족 · 다문화사회의 이행을 위한 정책 패러다임구축-세부과제 1 : 한국사회의 다민족 · 다문화 지향성에 대한 조사 연구**. 서울 : 한국여성개발원.
- Denham, S. A., Renwick, S. M., & Holt, R. W. (1991). Working and playing together : prediction of preschool social-emotional competence from mother-child interaction. *Child Development*, 62(2), 242-249.
- Gardner, F., Ward, S., Burton, J., & Wilson, C. (2003). The role of mother-child joint play in the early development of children's conduct problems : A longitudinal observational study. *Social Development*, 12(3), 361-378.
- Kochanska, G., & Murray, K. T. (2000). Mother-child mutually responsive orientation and conscience development : From toddler to early school age. *Child Development*, 71(2), 417-431.
- National Institute of Child Health and Human Development (1999). *NICHD Study of Early Child Care Phase I Manuals*. <https://secc.rti.org/manuals.cfm>에서 2008년 5월 27일 인출.
- Pianta, R. C., & Harbers, K. L. (1996). Observing mother and child behavior in a problem-solving

situation at school entry : relations with academic achievement.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34* (3), 307-322.

Weinfield, N. S., Ogawa, J. R., & Egeland, B. (2002).

Predictability of observed mother-child interaction from preschool to middle childhood in a high-risk sample. *Child Development, 73*(3), 528-543.

---

2009년 8월 31일 투고, 2010년 3월 22일 수정  
2010년 3월 26일 채택

<부록 1> 유아-어머니의 놀이상호작용의 질적 측정 척도의 내용

|  |  |  |
|--|--|--|
| 어머니<br>측정척도<br>(Mother<br>rating scales) | 지원적 태도<br>(supportive presence)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어머니가 유아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감정적인 지원을 나타내는 정도를 측정</li> </ul>   |
|  | 유아의 자율성 존중 태도<br>(respect for child's autonomy)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유아-어머니의 놀이상황 중 어머니가 유아의 개성, 동기와 관점에 대한 가치를 인지하거나 존중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정도를 측정</li> </ul>  |
|  | 인지발달의 자극<br>(stimulation of<br>cognitive development)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어머니가 유아의 인지와 정신적 발달을 촉진하고자 노력하는 정도를 측정</li> </ul>   |
|  | 적대적 태도<br>(hostility)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어머니가 화를 표현하거나 유아에게 감정적으로 지원하지 않거나, 유아의 가치를 감소시키는 등 거절하는 정도를 반영하여 측정</li> </ul>  |
|  | 확신에 찬 태도<br>(confidence)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어머니가 어떤 상황에서 유아와 함께 성공적으로 놀이를 할 수 있는지와 유아가 적절하게 행동할 것에 대해 어머니가 믿는 정도를 반영하여 측정</li> </ul>  |
| 유아<br>측정척도<br>(Child rating<br>scales)   | 열중하는 정도<br>(enthusiasm)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유아가 활력과 자신감을 갖고 놀이를 하고자 하는 열망으로 행동하는 정도를 측정하며, 반드시 놀이에 대한 목적 지향적 행동에 대해서 측정</li> </ul>  |
|  | 어머니를 향한<br>부정적 태도<br>(negativity)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유아가 어머니에게 보이는 분노, 비호감 또는 적대성을 측정</li> <li>예를 들어 어머니의 생각을 강하게 거절하거나, 분노와 저항의 표현, 입을 삐죽거리며 뽀루통함, 납득되지 않게 어머니에게 무언가를 요구하거나 비난하는 경우에 측정</li> </ul>  |
|  | 지속하는 정도<br>(persistence)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유아가 실제로 장난감과 관련하여 나타나는 지속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활발하게 장난감을 갖고 놀이에 참여하며 직접적으로 유아가 자기의 놀이나 어머니가 중재하는 제안에도 끈기 있게 놀이를 하는 정도를 측정</li> <li>지속성에는 열중도(enthusiasm)를 포함할 필요는 없으며, 관찰자는 이 척도를 채점할 때에는 장난감으로 놀이를 하는 아이의 참여도를 반영해야 함. 지속성을 유지시키려는 어머니의 도움 정도는 고려하지 않고 측정</li> </ul> |
|  | 어머니를 향한 애착정도<br>(affection toward mother)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유아가 어머니에게 상당한 기간의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지와 행복함을 공유하는 것을 반영하여 측정</li> <li>측정의 기준은 유아가 어머니와 긍정적인 감정을 공유하기 위해 접근하거나, 시도하려는 모습이 보일 때 측정. 표현의 강렬함보다는 유아가 어머니를 바라보며, 눈을 맞추고, 웃거나, 긍정적인 감정을 공유하는 것 또는 다른 형태의 감정적인 접근 행위에 중점을 두어 측정</li> </ul>                                |
| 상호관계<br>측정척도<br>(Dyadic scale)           | 감정적 상호작용/정서적인<br>안정감 정도<br>(affective mutuality<br>/felt security)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유아와 어머니 사이의 감정의 유용성과 상호관계를 측정하며 얼마나 확실하게 유아가 어머니를 느끼는지를 측정</li> <li>어머니가 진심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유아가 가진 느낌에 중점을 두어 측정하며, 언어적·비언어적 의사소통과 부모와 아이가 무엇을 의사소통하는지, 어떻게 그것을 해내는 지에도 중점을 두어 측정</li> </ul>   |